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선생님 명절교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전체찬양 : 찬송가 502장(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요즘은 잔디가 폭 익어서 앉기는 편한데 검불이 붙으니까 집에 갈 때는 다 털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뒹굴다가 왔느냐고 할 것입니다.왜 그런 검불을 서울에까지 털고 돌아다닙니까?

어제 밤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차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 주에는 12000 - 13000 명씩 모여드는데 주차장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꼭 빨리 만들어야겠다.’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운동장에 차를 대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판 데로 가니까.

그 동안 내가 이곳에 붙어있으면서 열심히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겨울 전에 할 일은 거의 급한 일은 다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 다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

도 급한 일은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저께 밤 10시에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돌을 놓고 어느 정도 금년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보니 또 변한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15미터 이상을 운동장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아마 금주에는 어느 정도로 흙을 채워놓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와서 밤에 기도생활도 하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추워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철야하면서 기도생활을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차안에서 자기도 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차안에서 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놓고 자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봉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아침말씀을 주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이 먼저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후에 사랑이고 복이고 모든 것이 결합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빛나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지게 되고 비원리적인 사랑이라서 사탄도 비웃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따른다.’,

또 ‘잘해 줘서 따른다.’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해 주고 잘해 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의 시대의 말씀을 외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혹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입니다.

“주가 오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누구를 맞으려고 하는데 맞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크고 뜨거운데 실상 어떻게 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다 이상적인 세계가 슬픔과 아픔으로 끝났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그런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다뤄서 말씀했습

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똑같이 그 일을 기록하여 서론으로 해서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잘 지내다가 잘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본 결과 믿는 사람 자신까지도 끝이 안 좋게 신앙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와서 잘 계시다가 잘 가신 것이 아니라, 편치 못하게 계시다 편치 못하게 가셨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불불게 되고, 다른 세계의 영웅적인 사고와 사상으로 하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편히 잘 계시다가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잘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객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적인 세계에 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쓰라림과 원치 않는 길을 가셨으며, 그의 죽음도 원치 않는 죽음이라고 단언하며 반기를 들며, 루터가 종교에 반기를 들듯이 성서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홀로 깨닫고 있다가 너무도 크고, 너무나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도시의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른만 있어도 얘기를 못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얘기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늘의 위대한 진리를 수천만 명, 수억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꺾어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명령하고, 내 몸뚱이를 하나님의 손발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여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면 못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시켜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의 조화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신이 역사 하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를 쓰는 수천 명의 시인들이 있는데, 나 같은 입장에서 시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힘듭니다.

그것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 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과 영감에서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또 이곳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그것도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동생은 정범석 목사

는 과거에 토목공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를 해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개발증이 없습니다. 나는 닭발증도 없습니다. 나는 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허증도 없고, 제대로 목사증도 없습니다.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한 2년 다녔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학을 맡았습니다.

그때 내 밑으로 청년들이 500명이 따라왔습니다. 청년들이 500명이 따라 오니까 신학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회에 성공했느냐 했습니다.

이처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 주고, 신론(神論)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년 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 안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그만 가스자동차를 하나 몰고 다니고 있지만 면허증이 없습니다.(웃음) 말을 타도 허가증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증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희생당해서 없어진 사람보다는 보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것이 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도 가끔 죽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큰 형님 위로 장녀가 한 명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큰 형님이 장남으로 제일 먼저 난 줄 알았더니만, 그 전에 하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가다보면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만도 불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계에 가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옛그제 신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했지만, “너희들 사람의 심리를 많이 연구해라. 어떻게 연구하는고 하니,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해 봐라. 이 사람 저 사람과. 천길 만길 지질바탕, 사람의 마음은 천 가지 만 가지다. 아침에 손가락을 깨물고 서약을 한 사람도 저녁에는 변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변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도급이 높아진다고 하고, 또 사람이 오랫동안 원리원칙을 가지고 살다보면 공자처럼 혼자 스스로 선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인생의 실력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실력이고, 간판을 따는 것도 실력이지만 인생의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많이 닦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예비를 못하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제대로 못 맞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면 잘 믿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만 왕의 왕이요 철인 중의 철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철학적인 면은 예수님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안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잘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많은 성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 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고, 주님이 보낸 자는 주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 스파이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고, 정치 스파이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고, 종교의 스파이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한 인간으로만 보면 연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수님이 인간보다 수천만 배 이상적인 사고와 사상을 가졌고, 그런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자가 역사를 하면 그는 일순간에 사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왜? 산에서 기도하다가 한번 응답을 받고 내려오면 무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런 정신과 사상이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생활을 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완벽한 응답과 계시를 받으면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일을 하게 하려고 임했으니 그의 사고와 생각은 상상도 못할 사고를 가졌던 것입니다. 1000년 앞선 사고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왔으며 수고했어도 그 단계를 못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외친 말씀의 수준을 표현하기는커녕 말해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이었습니다. 육성으로 보면 형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이 가까우니 전부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한 촌에서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4000년 동안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외친 선지선열들을 볼 때에는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구절창한 예수님이라는 뚝단배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착오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 하시는 자를 두렵게 볼 줄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섬기고 위하고 바랐던 두렵고 황공하고 망극한 그 여호와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좋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제물을 드릴 때는 깨끗함으로 하고, 항상 거룩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령을 뒤집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늘이 보낸 나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자기 인격적인 세계가 많이 작용해서 실패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을 나는 깊이 하늘로부터 깨닫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구나.’

성현들이나 크나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을 해보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험담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통령을 해본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제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수준과 위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해 볼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이 제일 험담을 많이 합니다. 왜? 모르니까.

아무튼, 주(主)보기 전에는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경에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주의 마음을 받아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번개 치듯 번쩍번쩍 순간 순간 알지요.

오늘 “주의 침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고 하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광야에는 이지가지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없는 데서 예비 한번 해 봐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게 만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참으로 크나큰 깊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는 원고가 한 자도 없습니다. 성경구절만 써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하면,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왔어도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왔어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은 곳은 앞에 지나가도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본인이 주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만 주를 만나고 주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말도 사다놓고, 사슴도 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러 가니까 무서워서 모두 안 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을 탄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섭지 않느냐?”

“왜 말이 무서워요? 저는 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집어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물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을 좋아하니까 말이 차도 말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니가 말을 관리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라.” 했습니다. 결국 말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주면 굶겨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말을 잘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풀을 뜯어놓았다가 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좋아하냐?”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말을 타고 다니는 그림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말을 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집중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했던 것이면 와도 잡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주’도 기다리고 원해야 ‘주’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도 자기가 믿고 좋아해야 나타나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계시도 받으려고 자꾸 기도하고 계시를 받으려고 해야 계시가 오지, 계시 받으려고 안 하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지나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곳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면서 자꾸 닭아대니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

다고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돌을 100개를 쌓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1000년이 가도 그냥 있습니다. 돌은 놓는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 대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을 맞이하려면 하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비하라는 말씀은 절대 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차가 한 대도 못 올라옵니다. 이곳에도 길이 닦아져 있지 않는다면 차가 한 대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내가 24-25년 전부터 늘 이 길을 닦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구름같이 온다고 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람이 구름과 같이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만나러 온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멍청하게 사람이 구름과 같이 온다는 소리를 그냥 하겠습니까?

나는 두려워서 무슨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성이 있거나 공갈을 치는 사람들은 큰소리를 잘 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구름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여건과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그 후에 그런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했다고 그러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내 자신을 파악하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막 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막 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쫓을거릴 때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심리적인 것인가 설교를 듣고 나서 환각작용이 일어난 것인가 분석하면서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그것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돼지가 할 일은 돼지를 통해서 쓰지만 사람이 할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 달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보내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나를 보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자신이 둔감하고 여호와와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그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깨달음을 받게 되고 뜨거운 불이 입 속에 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미치겠다고 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일하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보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닿으면서 깨달음이 닿을 때, 나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비하라! 침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는 말은, 아름답게 하라! 좋게 하라! 그대로 편안하게 해 줘라! 오는  
데 편안하게 해 주도록 하라.

편안 사람에게는 편하게 마음이 와 닿게 되고, 손길이 가게 되지만 편안치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지고 먼저 두려움과 의식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복음 앞에 오도록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강제성을 띠다든가, 너무나도 환각작용에 해당되는 그런 말  
들을 한다든가, 종교에 빠진 상태에서 말을 한다든가, 말을 안 들으면 울그락 불그  
락 하고 막 분을 내면서 할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것은 자갈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  
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미니카(mini car)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땅에 바닥에 닿아  
서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총동원해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느냐? 굉장히 멀어서 뛰어다닐  
수도 없고 또 다녀야 하는데.”

그리고 길을 다시 깔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설교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다 다듬어놓으니  
까 여러분들이 그 길로 와서 차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만 평탄케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애들이 오는데 평탄케 잘 해 줘야 되  
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한 13000명 정도 와서 내가 1시간 반 동안 교통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나에게 컷속말을 해 주었습  
니다.

“주일날이면 서로 차를 주차하려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욕까지  
합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안 쫓아다녀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할 사람  
이다. 너희들끼리는 못 한다. 다음 주에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고 밤에 철야  
를 하면서 일을 해서 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지난주

의 1/4도 안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평탄케 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세가 와서 죽으니 돈을 다 써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털어 내놓으라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만, 순 복음만 전하지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앉아있는데 꼭 여기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면 집에서도 합니다. 자기 집의 골방에 처박혀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압니다. 기도생활을 30년 이상 해왔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혹시 만나서 이야기나 해볼까, 인생문제 다뤄볼까 하면서 겹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떳떳이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탁 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앉아있으려면 몸도 쭈시고 아픕니다.(웃음) 낮에도 이렇게 추운데 밤에 얼마나 지겨운지 압니까?

밤을 새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방에서 나올 때는 밤을 새우기로 결심을 하고 나오지만 막상 1시간이 지나가면 시계를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웃음) 밤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다른 때는 시간이 잘 가지만 기도를 막 해대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위가 오니까 방향을 달리해서 집에 있는 골방에 처박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더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춥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 이곳에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즉시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구원의 책임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책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걱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딸자식 걱정, 나이 어린 애들 걱정...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평탄케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부모가 여러분을 잘 대하도록 평탄케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혀 부모님들의 핍박이 없이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핍박을 무지무지 많이 받으면서도 교회에 다 나오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기준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핍박을 많이 받고 부모 속을 썩이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교회로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부모 걱정도 없이 핍박도 받지 않고 그대로 온 사람들은 무슨 복인가 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첩경을 평탄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회귀종 부모님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별난 부모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너무 지나친 과잉보호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국가 앞에도 주권자의 평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첩경을 평탄하게 해 주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편하면 가정이 편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꼭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도 하나님의 전(殿)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 둘도 없고 하나있는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전(自然殿)! 앞으면 얼마나 많이 앞겠습니까. 이렇게 큰 전(殿)도 없습니다. 소나무 밑에도 돌을 갖다놓아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원공원으로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잘 쓰고, 이것 한도 끝도 없다. 깨끗이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오게 만들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마십시오. CCC에서도 정동에 교육관이 있다고 큰소리치며 너희는 뭐가 있냐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은 다 팔아서 없어졌습니다.

이곳은 팔 수도 없을뿐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수익을 위한 곳도 아니고, 오직 온 인류가 이곳을 찾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 얘기하며, 자연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섬겨 즐겁게 해 드리라고 이곳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월남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죽을 뻔하다가 산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을 평탄케 해 놓으니 편안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손을 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깔아준다고 약속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억이나 3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깔을 것입니다. 보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서히 포장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댈 예정입니다. 즉, 성전을 평탄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아스팔트길로만 다니다가, 도시에서는 빠끔내다 보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다가라고 해서 1981년인가 왔었는데 앞차가 지나가면 그 먼지 속에서 지나가야 하고 또 자갈밭에서 차가 펄떡 펄떡 뛰는데 마치 생선이 모래땅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는 막 나고. 그때 내가 ‘야..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서 나를 찾으러 오는 제자들을 볼 때 상당히 민망하고 미안스럽고 마음이 안 됐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의 측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탁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났습니다. “내가 아스팔트를 입혀 주마.” 그 소리가 탁 들렸습니다.

그 뒤에 박승호 의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를 보고 내가 도와줄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내가 의원인데 도와 줄 것이 뭐냐?” 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싶습니다.”

“그렇게 깔지. 이번에 가서 올려야 되겠구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만났는데, “올렸는데 하기로 했어.” 그랬습니다.

예전에 유진산 선생이 있을 때도, 유한열 선생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아스팔트를 깐다고 했지만 다 못 깔았고, 광산에서도 깐다고 했는데 못 깔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깔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스팔트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골짜기는 아스팔트를 깔 장소가 아닌데 깔아 주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깔렸고 이곳만 남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때 ‘이것은 내 책임분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쩍 겁이 났습니다. 8km를 하나님이 깔아주시고 1km는 내 책임분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스팔트를 깔려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우리들의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몇 백 미터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머지도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앞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조금 까는 데에도 큰 차로 일곱 차나 아스팔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

어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깔아주기만 하면 괜찮아 질 것입니다.

주차시설도 1,500대 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싸움질 안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차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차를 가졌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오늘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해 주는 것이,

-> 바로 하늘을 믿고 말씀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역자들, 지도자들, 전국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따르는 무리를 평탄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불안케 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교역자가 기도 안 해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새벽예배를 안 드려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강의할 때도 위대한 말씀을 힘차게 전하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평탄케 못 해 주는 것이지요. 편안하게 못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으르릉 거리는 호랑이, 사자의 입을 찢는 다윗의 정신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지도자들은 그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러 오는 이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을 잡으러 오는 흑암의 세계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탄을 꾸짖어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깨달음을 받는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평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전할 때 첩경이 평탄한 그런 언어를 써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강의 좀 한번 잘 해 봐요. 강의 연습을 한 두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지방 회원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팔에 기부스를 했다고 합니다. 팔이 잘 낫지를 않는다고 하기에 내가 여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하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내 실력보다 고쳐 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내가 150번 정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고쳐졌습니다. 불구자가 되는 것은 생명이 붙어서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팔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두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여러 수백 번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강의 하는 연습도! 산에 가서 연습할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앞에 두고 강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못 해서 왔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적은 사명입니까? 큰 사역자이니 책임을 지고 해 보십시오.

설교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강의도 잘한다면 300-500명의 교회도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도 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자리만 걱정을 하니 참 멍청한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취직을 못 했다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 정말로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의 가슴에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합니다. 툭툭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애들은 시대가 더 발달되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돼지처럼 살이 찢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들을 해 보십시오.

나는 밤낮주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마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찢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있지 말고 노력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비싸게 사서 힘들게 갖다놓아도 그냥 놓아두면 죽어버립니다. 심을 때늦게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보름 늦게 심었습니다. 저 나무가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너, 죽으면 그 자리에 위대한 탑을 세울 것인데 죽으려면 맘대로 죽어라. 그래서 15미터짜리 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우려고 말입니다.”

회원들이 말을 안 듣고 나가면 바로 세워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상 찌푸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 조경이 무너졌을 때 참 캄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쌓아야 되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쌓자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바친 몸이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도 쌓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쌓았는데 딱 12일 만에 쌓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큰 돌들을 12일 만에 쌓았다고 하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고 시를 썼습니다.

詩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을 모를 겁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같이 쌓지 않는다면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닫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당신을 모를 것입니다  
닫은 사람이 열어 주지 않는다면 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을 모를 것입니다  
아 산성(山城) 문빋장 닫힌 것,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열 수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실 것입니다  
아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당신은 모르실 것입니다  
아 닫힌 문을 다시 열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산성 문빋장 다시 연다면 얼마나 기쁘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이 시를 저것 때문에 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람 있게 쓰고 가치 있게 하십시오. 오늘 부로 저곳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길로만 다니십시오. 그냥 마구 막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작품을 막 밟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밟지 말아야 할 곳을 밟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작품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왜 만집니까?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왜 만집니까? 또 밟습니까?

닭을 때는 부지런히 열심히 닭아도 3시간이상이 걸립니다. 황토 흙으로 밟으면 물이 들어서 파내도 잘 안 지워집니다.

여자와 정원은 매일 손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면 물이 들어서 내일 닭습니다. 가다가 돌이나 있으면 주워서 가지, 그냥 놔두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큰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돌이 있어도 그곳에 있을 돌이 아니면 줍고 갑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돌이 보이면 볼을 넣고 나오면서 줍습니다.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나는 정신이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내가 이 세상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이치나 법칙과 깨달음, 인생에 대해 많이 깨달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엿저녁에 저것을 하면서 “애들아, 오늘 부로 일단은 문을 닫자”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늘을 깨닫고 오는 선생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돌을 안 줍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본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자기 길을 갈 때는 잘 살펴보아서 무엇이 없나하고 주울 것이 있으면 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늘 다니니까 일단은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손님이 와서 구경시켜 줄 때나 가치성을 느끼는 사람만 올려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회원은 올라가려면 사인 받고 올라가야지 그냥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닫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과 저기 올라가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작업하는데 3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씩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치 있게 쓰자는 것입니다.

1년에 1번 왔다 갔다 해서 얼마 안 갔다 온 것 같지만 우리전체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밥을 해 준 숫자가 있어 인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가늘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면 하늘이 역사 하게 되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산만 뭉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탄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탄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아지는 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게시록 17장에 보면 산(山)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험한 마음과 험상한 인상, 험한 정신들이 평안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광야에서 예비하려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이기 때문에.

이외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집에 가서 성서를 찾아보십시오. 대학교 공부하듯 열심히 성서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남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불리 가르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해 주고 잘해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하늘 이름으로 평탄케 해 주고.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에서 배운 대로 못 한 것입니다.

세계요한이 만약에 주의 길을 평탄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겠습니까? 요한이 험한 길을 갔듯이 예수님도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왜 했

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할 사람인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만 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고, 사형 틀인데 짊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너무 낮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예정이라면 인간이 타락된 것도 예정이고 다 예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10-20년, 30, 40, 50, 60, 70, 80, 90년 동안 역사를 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세주가 아니라도 저렇게 오래 사시는데 구세주는 오랫동안 살아서 인류를 지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년 준비했다가 3년 있다가 가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잘 했다고 박수를 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전해 주는 것입니다.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십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인 것이라고 후에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안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思考)가 다른 데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인식관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로 성경을 보면 100번 본다고 해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이 시대 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다음 자리라 할 수 있는 사도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잘못 깨달았다면 성경이 모두 잘못 되었겠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몰라서 죽인 것입니다. 대부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못했을 때 내가 빠져나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랬지, 알고 그럴 리가 만무하지.’ 그 통로로 짹 빠져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 통로를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지, 알고는 안 했겠지. 알았어도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몰라서 한 것도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까지 그 고통이 연속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못 찾았는데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고통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답안지도 답을 깨닫기 전까지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번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벌이라고 하고 탕감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첩경을 평탄케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평탄하게 해 주셨습니다. 험한 길과 험산과 죽음의 계곡과 아픔의 계곡과 병듦의 계곡을 평탄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평탄하게 해 주었나를 생각할 때 오늘부터 청산하면서 남은 바 멋진 역사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밤잠을 못 자고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쫓아 다니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찬물만 떠놓고 정성만 드려도 다르다는데.

언젠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저 집은 찬물을 떠다놓고서라도 저를 위해서 정성드리는 사람이 없구나.”그 음성이 내 입에서 났 나왔습니다.

냉수라도 떠다놓고 정성을 들이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날 때마다 즉시즉시 미루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동되었을 때 해야 됩니다. 감동되었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감동, 주님은 보호, 하나님은 구상하시고 모든 작전을 하십니다.

‘저놈을 시작해야지. 구원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면 벌써 성령께서 어디까지 무엇 무엇을 협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보호를 어디 어디를 할 것인가, 나머지는 인간책임입니다. 이러면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첩경을 평탄케 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알겠습니까. 여기 월명동도 이만큼 해서 첩경을 평탄케 해 주었습니다. 같이 했지만, 이제 이런 평탄케 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써먹고, 또 말씀으로 평탄케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잊어버리자 말고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성서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씨를 뿌렸다면 먼저 익어야 됩니다. 먼저 떠났다면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못 갔을까? 운전을 못 하니까 먼저 못 갔지요. 책임이 큼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가야 됩니다. 쪽쪽 뻗어 나가야 됩니다. 나중 된 자는 나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왔으면 먼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가 밥을 먼저 먹지 못하면 주는 사람도 미안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시기질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질투를 통해 사탄이 들어오고 흑암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하늘의 입장은 괴롭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한 주일 동안 뛰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줍지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다. 추울 때는 어떻게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까. 잔뜩 입고 와야 됩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됩니다. 저것들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고,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잘 하고, 저것도 잘 하고, 걱정 끼치지 말아야 되고, 조심하 살아야 되고, 아주 근신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이게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단계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도저가 정돈을 못 시키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불도저가 정돈할 것을 정돈해야 나머지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리를 못한 것은 차가 못합니다. 사람이 정리를 해야 차가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자갈밭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옥토밭이 되어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싶은 것입니다. 눈이 빠지 않았으면 자갈밭, 거기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가시덤불에다 농부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가 남아돌아갑니까? 그 씨를 가져다가 닭 모이라도 하지 거기에다 뿌리겠습니까. 먹게 썩어나오나 하고 덩불에다 뿌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첩경을 평탄케 해 봐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기 도 >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맞으려면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 주면 내가 가겠노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내 말대로 주관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와 같이 모으고 나와 같이 헤치지 않는 자는 역시 첩경을 평탄케 못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불, 바로 심령의 부활, 사건의 부활, 환경의 부활, 정신적 부활을, 바로 마음을 평탄케 근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 때는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차, 불안한 배, 불안한 사람이면 따라갈 수 없는 입장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 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시대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불안치 않게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안한 생각을 하고, 늘 불안한 정신과 사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근본으로 깨닫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역사를 펼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떨쳐 버리고 정상적인 진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게 해서 거기에 결실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강림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위대한 시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축복하심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뭘 어떻게 할 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정치나 경제, 모두 첩경을 평탄케 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첩경이 평탄치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역시 걱정되는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첩경을 평탄케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권자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권자는 5년 하고 끝나고 가지만, 우리는 남아서 계속적으로 국가 앞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위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차비는 올라가고, 불안한 경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 첩경을 평탄케 하지 못해서 민다가 다 빠져나가버리고, 교회기 번창하기보다 계속 줄어들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며 무슨 개혁일 일어나든지 해야지 큰일 났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사람이 가물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은 그 첩경을 평탄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말씀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불 심판을 한다, 공중에서 나타난다.’ 하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맞은 역사가 6000년 동안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진 위에 집을 지을 때 편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성자성신, 삼위의 큰 능력과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전국 온 지구촌 십리 나라에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